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교육 세미나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제9차 | 임상실습 점검 및 개선 논의

일시 : 1월 26일(목) 17시
장소 : 의학관(마곡) 301호
제9차 세미나는 「임상실습 점검 및 개선 논의」를 주제로 이화의학교육센터에서 준비하였다. 이화의학교육센터 편육범 센터장이 △우리 의대 교육 잘 하고 있나요?를 주제로 임상실습 개선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이화의학교육센터 정소미 특임교수가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교수 인식 차이 분석을 발표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임상실습 교육 OT, 실습담당 전공의, 학생과 교수 간의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다. 현장에는 편육범 교육부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이 참석하였으며, Zoom 접속을 통해서 이경은 교수, 권형주 교수, 정혜선 교수, 태정현 교수, 공경애 교수 등 서울병원과 목동병원 소속의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정성애 교무부학장은 "실문을 통해 평가하고 우리 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도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였으며, 편육범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임상교육을 개선하고 평가해나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세미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0차 | 연세의대 김혜원 교수 초청, '의대생 상담 및 마인드 케어' 논의 진행

일시 : 2월 27일(월) 16시 30분
장소 : 의학관(마곡) 계림홀
제10차 세미나의 주제는 '의대생 상담 및 마인드 케어', 부제는 '연세의대 학생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로 세부 주제는 △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 △ 연세의대 학생지원 체계, △ 연세의대 학생마인드 케어센터 활동, △ 의과대학생 상담에서 고려할 점이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의과대학생 마인드 케어 지원을 위한 재원 지원, 행정 지원 및 성적 평가 등을 다루었다. 현장에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Zoom 접속을 통해서 목동병원 소속의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었다.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은 "연세의대의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의대의 학생 상담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이며 angelica66@ewha.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36차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 후기 (2022/12/01~02)

내과 정민경 교수

신임교수들은 모두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근 몇 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시기여서 새로운 시도인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블렌디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에서는 VOD 강의를 보며 사전 학습을 한 후 과제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들은 강의를 토대로 실습을 하는 방식이었다. 수업 설계, 강의 전달기법, 메타인지 중심의 교수전략, 시험문항 작성원칙, 학생 상담 등에 대해 4시간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강의계획서 작성하기, 짧은 강의 시연 슬라이드 만들기, 시험문항 출제하기 등의 복잡한 과제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에 참가하기도 전부터 고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여러 과의 교수님들과 정해진 조별로 앉아 실습을 진행하였다. 조별로 돌아가면서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본인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과제로 제출했던 강의 계획서나 시험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서로 수정할 부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마이크로칭팅 실습시간에는 랜덤으로 선별된 세 분 교수님의 강의 시연을 비디오 촬영하여 피드백을 받았는데, 실제로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강의의 질향상을 위해 이러한 마이크로칭팅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효율적인 강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메타인지 중심의 교수전략, 자기주도학습'이었다. 이 시간에는 각 조별로 다르게 주어진 지시대로 나열된 단어들을 학습하고 이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전달 방식이 효과적인 기억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방대한 의학 정보를 짧은 시간에 쏟아내려고 하다 보면 자칫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열식 강의를 하기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그룹화해서 천천히, 의미적 수준에서 전달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하겠다고 직접 느낀 시간이었다. 가기 전에는 굳이 블렌디드로 오프라인 실습에 참가해야 해서 귀찮은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직접 참석해보니 각지에서 온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습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신입교수 워크숍에서 느낀 떨림, 사명감, 고민들을 간직하며 더 나은 교수자가 되도록 힘써야겠다.

2023 교내/외 의학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일정

Table with 4 columns: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Rows include dates from 03.20 to 05.25 and various workshop/seminar titles.

Table with 4 columns: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Rows include dates from 03.03 to 05.03 and various workshop/seminar titles.



이화 의학교육 소식지 Ewha Medical Education Newsletter

이화의학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이화의학대 교육목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의학교육상 시상

2022학년도 「이화 의학교육상」 내과학교실 김승정 교수, 이경은 교수, 외과학교실 권형주 교수 수상



▲ 내과학교실 김승정 교수 ▲ 내과학교실 이경은 교수 ▲ 외과학교실 권형주 교수
우리의학대(학장 하은희)는 지난 2월 27일(월) 전체 교수회의에서 2022학년도 「이화 의학교육상」을 시상하였다. 「이화 의학교육상」은 우리의학대에서 그동안 시상해온 교육 관련 상들을 통합하여 의과대학 교육에 헌신한 교수에게 시상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이번 「이화 의학교육상」 수상자는 2022학년도 1년 동안의 교육 참여도와 학생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선정되었다. 수상에는 내과학교실(신장내과) 김승정 교수, 내과학교실(혈액종양내과) 이경은 교수, 외과학교실 권형주 교수가 선정되었다. 이화의학대는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참여 우수 교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의학계열 고교학점제 시범수업 운영

「의학 입문」·「소화기학 입문」·「외과학 입문」 강의 진행

입학처 박선영 연구원

우리 의과대학(학장 하은희)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개의 고교 과정을 개발하여 마곡 의과대학 및 이화의료 아카데미 VR 교육센터에서 고교학점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시범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질 높은 강의와 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1월 11일(수)과 18일(수) 양일간 진행되었다. 1월 11일(수)에는 '의학 입문'(의학과 정성애 교수, 권형주 교수, 한승호 교수)과 '소화기학 입문'(의학과 정성애 교수, 한승호 교수) 강의, 1월 18일(수)에는 '외과학 입문'(외과학 권형주 교수, 한승호 교수)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각 강의별 15명 정원으로 선정했으며, 93%의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강의를 수강한 고교생들은 "이론 강의와 함께 실습형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진로설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심도 있는 지식과 훨씬 전문적인 경험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강의 내용 및 수업 운영방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보직자 워크숍」 개최

“LEAP AND THEN FLY”



▲ 의과대학 보직자 워크숍 단체사진

의과대학(학장 하은희)이 주최하는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보직자 워크숍」이 2월 1일(수)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화의학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과 다짐, 의과대학 중대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보직자 워크숍에는 의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과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위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 교육, 의학교육인증평가의 3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 파트는 '의과대학 연구중

진을 위한 JUMP'를 주제로 정성철 연구부학장이 △ 학장님-주임교수 면담자료 요약 및 연구 인센티브제도 검토, 이정원 기획차장이 △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현황 및 모급현황을 발표하였다. 교육 파트는 '의과대학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START'를 주제로 이화의학교육센터 정소미 특임교수가 △ 학장님-임상실습 주임교수 면담 질적 분석 결과, 이화의학교육센터 편육범 센터장이 △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6년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의학교육인증평가 파트에서는 '의학교육인증평가 중간평가 결과 EVALUATE'를 주제로 각 분과 위원장이 분과별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각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가 앞으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그리고 M&E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학생 공모전 수상 후기

##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전에 도전하며

### 의학과 4학년 김영화 윤금주 조아련

본과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을 즈음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전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OSCE 준비를 할 때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진단검사의학과 실습을 돌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혈액배양채혈 술기를 친구들과 명확하게 정리하면 국가고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실습을 하던 같은 조 친구들과 참여하게 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 소민경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혈액배양채혈 술기를 할 때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학습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영상을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것이라 서툴렀지만,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서로 잘 도와주어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세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공모전에서 입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심 입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모전을 처음 지원했기에 입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한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러닝컨소시엄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 활동 및 다양한 학생들의 공모전 학습자료를 보며 학습 경험을 나누는 현장에 있어 뜻 깊었습니다. 공모전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끼리의 힘으로는 부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소민경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피드백을 주신 덕분에 소중한 학습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저희도 혈액배양 술기를 확실하게 익히는 계기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 자료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술기 영상 뿐 아니라 이론 학습에도 도움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 앞으로 여러 의대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보다 잘 이용했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 ‘이러닝 컨소시엄 그거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해 보시라니까요?

### 의학과 4학년 김미산

이러닝 컨소시엄은 우리에게 정말 멀고도 가까운 공모전이었다. 마곡에서 의대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특정 기간만 되면 여기저기 홍보물이 붙는데, 저걸 대체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상금을 준다는데 그것 빼고는 좋은 점이 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딱 거기까지만 작은 이벤트. 참여하게 된 계기도 정말 별것 아니었다. 우리 영상제작 동아리 MVMT의 선배님들이 참여해 상을 받으셨으니 앞으로 이걸 우리 동아리의 전통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방학을 통째로 투자하여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 했다. 우리 주제는 <쉽게 알아보는 자율신경계 약물>이었다. 약리학. 애종의 과목이다. 내로라하는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빛어내신 훌륭한 교육과정도 의대생들이 약리학을 쉽다고 느끼게 만들기에는 무리였다. 우리에게 어려웠다면 남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다. 남은 것은 영상제작이라는 거대한 산이었다. 우리 동아리는 영상제작 동아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을뿐더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한둘에 그쳤다. 하지만 마이크 로소프트가 보우하사, 위기에 빠진 어린 양들을 파워포인트가 구원했다. 우리의 팀워크도 환상적이었다. 서한정 동기와 이숙진 동기가 바쁜 일정 중에서도 빠르고 성실하게 쓴 대본에 따라 황유빈 동기와 내가 콘티를 작성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 이경은 교수님께 감사받았다.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신선한 주제에 이런 엄청난 팀워크?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자만할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시상식 당일이 되었다. 우리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전문 장비도 없이, 속되게 말하자면 '아베로 영상제작에 뛰어난 초심자들'에게는 굉장한 성과였지만 원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다. 사진은 웃으면서 찍었지만 좀 속상했다. 아니, 대상 팀은 얼마나 대단한 영상을 만드셨길래 무려 대상을 받지? 만찬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안웃거리 심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 줄 거라고 졸렬하게 맹세했다. 하지만 맹세는 쓰레기 통으로 직행했다. 따질 게 없었기 때문이다. 대상 팀의 영상은 10분짜리였다. 요새 범람하는 유튜브 쇼츠가 30초짜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집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시간배분이다. 하지만 구간을 끊고 나누고 효과를 넣는 작업을 정말 훌륭하게 해서 감상하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응급의학과 실습에서 배운 제세동기 OSCE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은 주제도 신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 하나를 봄으로써 내가 마치 제세동기 OSCE의 제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 훌륭한 교육 영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영상 편집에도 일가견이 있는 팀은 정말 무적이었다. 자괴감이 들지는 않았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틈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울 방법을 궁리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환상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닝 컨소시엄은 내가 훌륭하다는 것. 하지만 세상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는 그들에게서 감점을 흡수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세상은 넓지만 그렇다고 초심자가 쪽도 못 쓸 정도로 혹독하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많이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상식에서 주는 밥이 정말 맛있으니 말이다.

#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수상 후기

## 제2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의학과 1학년 이은서



공모전 2차 모집 홍보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웹툰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콘텐츠 공모전이 열렸다고 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예과 2학년이라서 선택할 수 있었던 주제가 한정적이었으나 건강 인식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의 경험을 재밌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예과 일러스트와 같은 그림만 그려보고, 만화를 완성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토리를 풀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화, 웹툰 콘텐츠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상 만화도 많이 참고해보고, 어플 사용법도 찾아보면서 만화를 그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봐서 좋았습니다. 제가 작품에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건강을 염려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건강불감증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대'라는 제목도 고통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은 괜찮을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자신의 건강에 관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지은 제목입니다. 저는 평소에 아픔에 둔하기도 하고, 늘 아픔

## 교육과정 소식

### '임상실습과 소개 (1)' 안과

#### 안과 전루민 교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안과 이론 수업은 본과 2학년 1학기에 기말고사 직전 1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고, 안과 실습은 4학년에 1주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양적으로 관심있는 학생들과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욕구를 모두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이론과 실습 모두 충분한 시간은 아니나, 학생들이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 알아야 할 안과적 질환의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술기를 익히고 안과의 주요한 질환과 수술을 참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짧은 기간이기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실습 첫날 기초적인 이론을 퀴즈로 보고 외래와 수술 참관, 증례발표, 실기 및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과 실습의 장점은 시간대별로 학생별로 스케줄이 모두 짜져 있고 학생들과 교수가 1대 1로 교육이 가능한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러 명이 외래나 수술 참관하지 않고 시간대로 배정해서 학생개인과 교수가 토론이 가능하다. 외래 중심의 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시간내에 회진을 기다리거나 자습하는 시간이 거의 없이 타이타하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다. 짧은 실습 기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없어 중요한 질환은 금요일에 증례발표와 피드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증례발표는 해마다 1명의 교원이 전담해서 평가와 피드백의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안과의 주요질환은 온라인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이 각자 강의 영상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기간에 오프라인 이론강의는 배제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짧은 실습기간이지만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을 오가며 학생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부상 후 제가 대처를 특히 못한 사례 2개를 만화의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꿀팁 내용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삼시세끼 잘 챙겨먹기 등과 같은 뻔한 내용 말고 위험한 질병의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모전 출 품을 했지만, 저 또한 더 건강에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독자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제가 어기면 모양새가 웃기다고 느껴져 오히려 이 작품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전 수상작들이 공개된 후, 다른 수상작들도 다 보았습니다. 콘텐츠 공모전이니만큼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위 수상작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평소 영상 편집과 관련된 영상들을 즐겨봐서 더욱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3분 가량의 영상을 제작한 정성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결하고 위트있게 전달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저도 영상이나 블로그 등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모전에 나갔을 때는 예과 2학년이었는데 올해는 본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될 것도 많고 삶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과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이 공모전도 다시 나가보고 다른 창작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 소개를 2023년, “이화 의대 임상교무부장”을 시작하며...

#### 임상교무부장(내과) 이경은 교수

최근 "임상교무부장의 각오와 교육방향에 대한 투고"를 요청받고, 전임 이혜진 교수님으로부터 임상교무부장 역할을 인계받으며,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막연한 책 임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180명의 본과 3, 4학년들을 이끌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강력하게 느끼고있다. 지난 수 십년 간 우리 의대는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된 교수법을 사용해서 의학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분야별 직무를 많은 선, 후배님들이 수행하고 계시다. 그 중 임상교무부의 대상은 본과 3, 4학년이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군이다.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의대생들은, 대개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묘사되듯이, "항상 뭘 모르고, 항상 졸고,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항상 피곤한,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다. 이는 비단 우리 의대만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책상앞에서 쉽게 지식을 습득하다가, 갑자기 기운만 걸치고 나와서, 지식이 난무하는 현실진료의 큰 바다에 부유하고 있는 임상실습단계이기에 보여질 수 있는 통상적인 모습이 아닐까한다. 그 흐름속에서 학생들은 본 1, 2학년의 충분히 숙지한 이카데믹 데이터를 리콜(recall)하여 실전에서 복습을 잘 하게 되면, 이 지식이 의사-환자 관계에도 나타나고 이후의 학습에 임하는 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국가고시 등의 결과물까지 잘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리콜과정이 불록되고, 자신감을 잃게되면, 더 이상의 학습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의사-환자 관계형성까지도 제한을 주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의대 학생들은 본과 1, 2학년에 그 어느 대학 학생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임상실습단계에서 막판 스퍼트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과거 수 년 간 이러한 학생들을 보면서 아쉬움에 말로써 용기를 주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실습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은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가장 큰 자신감은 성공과 성취감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본 1, 2학년의 지식을 훌륭히 리콜하여 본 3, 4학년의 임상실습에서의 완벽한 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과 머리를 맞대어 최적화된 "임상실습교육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